정다운 이웃

장수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장수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7일 주민자치위원회장수군협의회 및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천천면 홀몸어르신 집을 찾아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장수군자원봉사센터 이사회비로 운영해 주민자치위원회·여성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생신상을 준비했다. 천천면주민자치위원회가 선물을 준비하고 쑥카스테라빵을 만들었다. 천천면적십자봉사회는 생신상 음식(미역국, 불고기, 잡채, 전, 나물 등)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어르신 생신을 축하했다.

육종순 이사장은 "앞으로도 생신날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 집을 방문해 생신상을 차려드리며 온정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수=유기종 기자

전북농협, 쾌적한 농촌마을 가꾸기 앞장

전북농협, 서군산농협은 지난 27일 범농협 노블고객봉사단 회원 10여명과 함께 군산시 산북동 신창마을에서 벽화 그리기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밝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농촌 어르신들께 정서적 안정감을 드리고자 건물 벽면의 벗겨진 페인트를 제거하고 해바라기 벽화를 그렸다. 또한, 마을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도로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계순 회장은 "거리두기가 계속되어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봉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등의 봉사활동을 전북농협과 함께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고창경찰서, PM 안전운행 홍보

고창경찰서는 PM(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법규준수 및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

이들은 관내 PM 이용이 증가하여 군민들에게 5월 13일부터 시행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알리기 위해 고창 관내 학교 주변과 주요 도로 등 8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PM(개인형 이동장치)을 타는 군민들에게 다가가 전단지 4,000장을 배부하면서 도로교통법 재개정되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탈 것을 예상하고 군청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카드뉴스를 게재하고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전광판을 활용하며 PM 업주에게 어린이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에 대해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안병철 기자

김제경찰서, 청소년 스토킹 예방교육

김제경찰서에서는 최근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시행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요성을 알렸다.

이날 교육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자체제작한 교육자료를 토대로 스토킹범죄의 정의와 처벌, 사례와 대응요령 등을 교육했다.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다소 생소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많은 관심속에 스토킹범죄 사례와 대응요령 등을 숙지하여 예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상형 김제경찰서장은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청소년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을 통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백용규 기자

화제 Like익산포럼, 토론회 성료

"익산, 보석과 예술로 꽃피는 도시 되길"

박수진 쉐리온 대표
윤미 예꽃 대표 참여

익산=고운영 기자

Like익산포럼은 지난 26일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33번째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월례포럼은 '익산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여성 청년기업인에게 듣는다' 주제로 박수진 금속공예공방 쉐리온 대표, 윤미 예술 이꽃피우다 대표가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자유토론을 가졌다.

박수진 대표는 "원광대 학생들이 매년 4,000여명 졸업하는데 익산에 정착하는 인원은 500명이 채 안돼 안타까운데 기회가 기회인지 모르고 있는 현실"이라며 "더 많은 인재들이 익산에 남아 꿈을 펼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접하고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쉐리온의 경우 고객의 60% 이상이 타지역 사람인데 공방에만 들렀다가 바로 기차타고 이동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관광지들이 도심과 너무 멀어 선뜻 추천하기가 어려워 도심 안에 문화생활 공간이나 볼거리가 밀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미 대표는 "익산은 예로부터 함라삼부잣집을 비롯 인심이 좋아 많은 예인들이 머물고 거주한 곳으로 전통예술 자원이 매우 뛰어난 지역인데 현재는 전통음악 기반이 약해진게 현실이다"면서 "자치단체가 문화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바람을 표했다.

그러면서 "비빔밥에 재료 한 가지 없어도 맛은 나지만 더 좋은 맛을 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처럼 문화예술은 사람이 살면서 정서적 건강과 만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도 문화예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 지원하면 지역경쟁력이 매우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자유토론 시간에 여성경영인 정영미 대표는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실질적 혜택 2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민 강을순씨는 "익산이 보석과 예술로 꽃피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는 "쉐리온은 갈수록 쇠락하고 있는 보석산업에 6가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창의적인 대안을 보여주고 있고 예꽃은 복지사업,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쉐리온과 예꽃처럼 창의적 활동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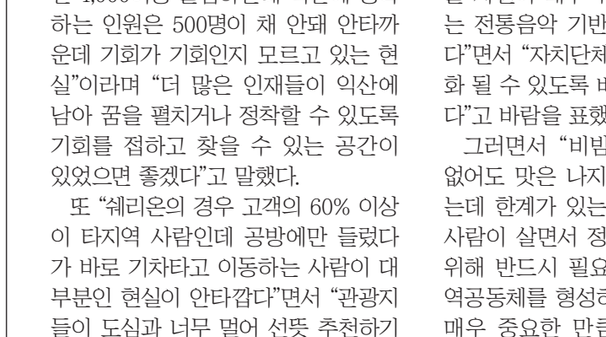
'로컬푸드 1번지' 완주, '로컬에듀 1번지' 까지

완주군이 교육협력의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27일 군은 교육부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주관한 2021 교육자치-지방자치 연계·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은 지자체-교육청 간 교육 협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와 교육청에 주는 상으로, 군이 그동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청과 함께 물심양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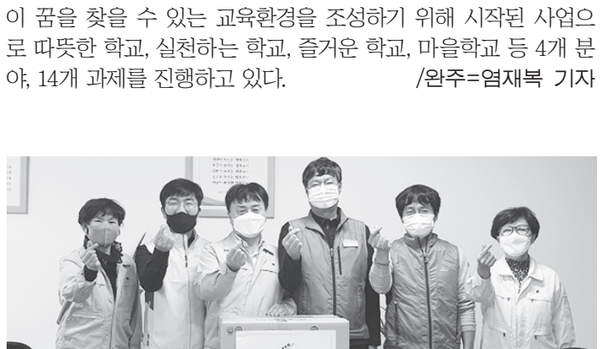
창의적 특구사업은 완주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이 꿈을 찾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따뜻한 학교, 실천하는 학교, 즐거운 학교, 마을학교 등 4개 분야, 14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도 · 군산시 공무원노조, 군산보건소 관계자 격려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는 지난 27일, 군산시보건소를 찾아 간식을 전달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최근 고등학생의 잇단 확진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된 일선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군산=백용규 기자



고창군, 왕귀뚜라미 활용 곤충치유프로그램

고창군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가 고창 원광참살이요양원 주간보호시설을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왕귀뚜라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르신들은 '왕귀뚜미 돌보기 키트' 만들기를 시작으로 4주간 왕귀뚜미를 돌보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왕귀뚜라미 먹이주기, 돌보기 키트 청소하기, 소리 듣기 등 다양한 관찰·체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참여자 대상 사전·사후 심리검사와 임상검사가 진행돼 심리적 치유결과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고창=안병철 기자

고창군,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현판식

고창동학농민혁명 유족회는 지난 26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농민군의 후손들이 마음을 모아 '고창동학농민혁명 유족회' 현판을 제작해 걸었다.

이는 김용선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회원과 유기상 군수, 최인규 군의장, 진윤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김동훈 고창군의회 초대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김용규 작가의 글씨와 강종환씨의 목판새김 등 현판이 세워졌다.

유기상 군수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동학농민혁명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세계 혁명사의 한 축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안병철 기자

정읍 '연지동 사람들 모임', 소외 이웃에 밑반찬 나눔

'연지동 사람들 모임'(연사모)는 지난 27일 지역 내 소외계층 21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자의 부실한 식생활을 보충하고, 타인과의 대화가 거의 없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의 정서지원과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정읍=박기수 기자

장수소방서, 가을철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장수소방서는 지난 27일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다음달부터 겨울철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74회를 맞이한 '불조심 강조의 달'에는 화재예방 홍보현수막 및 포스터 등 게시, 화재예방을 위한 영상물 송출,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등 다양한 홍보를 펼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군민 참여형 119안전문화 행사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수=유기종 기자

전북 이모저모

정읍소방서, 첨단방사선연구소 합동 훈련

정읍소방서가 지난 26일 오후 신정동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화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 소방훈련을 가졌다.

이번 훈련은 소방공무원과 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발생을 가정하고 위소방대와 연계한 화재 대응능력 향상, 활용 가능한 자체 소방시설 파악과 활용법 강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정읍=박기수 기자

정읍경찰서, 강력2팀 신임경찰 간담회

정읍경찰서가 지난 27일 오전 강력2팀장 주재로 임용 2년 이내 신임경찰관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수사관 양성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신임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임수사관 양성을 위해 강력 팀 업무소개, 수사권조정과 관련 국민 중심 책임수사 주요 내용 등 실제사건 분석을 통한. 사건 해결 노하우와 강력형사 진면모 등을 소개해 신임경찰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줬다. /정읍=박기수 기자

익산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신규조성

익산소방서가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소방서는 지난 27일 함라면 금곡마을에서 '2021년 화재없는 안전마을 신규조성'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LP가스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취약계층 30세대에 노후전기· 가스 등 주거시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마을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익산=고운영 기자

류재혁 부안경찰서장, 안전치안 확립 강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부안군의 치안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는 동시에 군민의 안전확보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질서 확립을 통해 더 나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류재혁(사진) 부안경찰서장(50)이 지난 26일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류 서장의 남다른 부안사랑이 화제다.

류재혁 서장은 지난 7월 19일 취임 후 주소지를 부안으로 옮기고 진정한 부안인이 돼 지역 안전치안 확립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 주소지까지 부안으로 옮기고 지역주민이 돼 지역민의 입장에서 안전치안 확립을 위한 다양한 치안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안=고병하 기자

명복을 빕니다

△라정희씨 별세
=이병문(KBS전주방송 보도국 기자)·이내성(전 전북지방인재교육원장)·이내학·이숙경 모친상, 황병학 빙모, 주성자·노윤아·강혜자 시모상
=별세 : 27일
=발인 : 29일 오전 9시 30분
=빈소 : 예수병원장례식장 3층 301호실
=장지 : 전주승화원/전주공원묘원